

흙에서 찾아낸 천년 비색의 혼 청자도예가 혁신 방철주.
인간문화재, 장인 그리고 뉴웨이브 크래프트맨십 아트퍼니쳐 아티스트 최병훈.
한·일 도예, 전통을 넘어 현재를 살다. 태엽과 로하스 그리고 공정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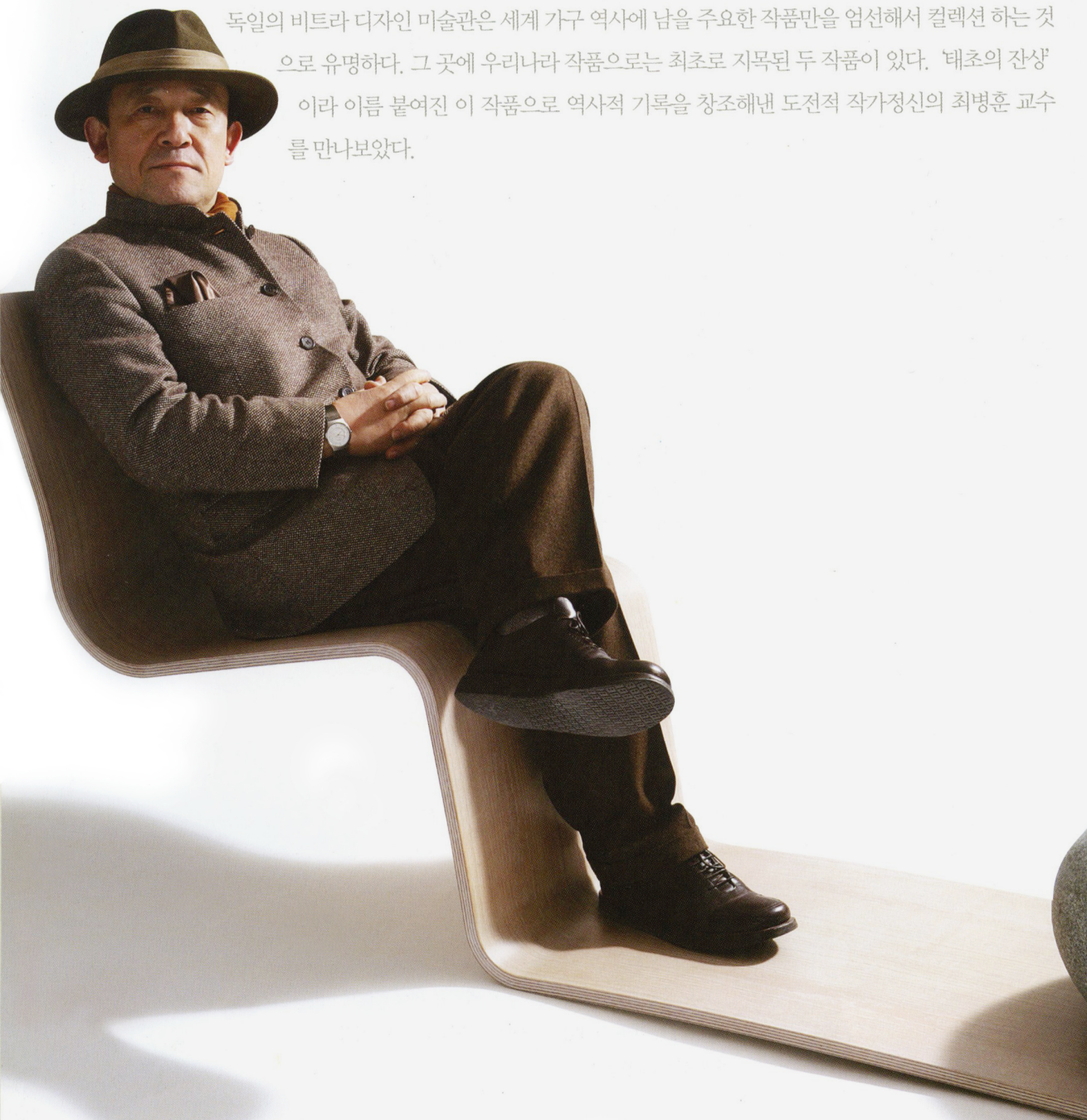


이대만 회교대출장 1층 500×195cm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담고 싶습니다”

artfurniture artist 아트퍼니처 아티스트_ 최병훈

독일의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은 세계 가구 역사에 남을 주요한 작품만을 엄선해서 컬렉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곳에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최초로 지목된 두 작품이 있다. '태초의 잔상' 이라 이름 붙여진 이 작품으로 역사적 기록을 창조해낸 도전적 작가정신의 최병훈 교수를 만나보았다.



Vitra Design Museum



태초의 잔상 afterimage 01-113
maple, pine
1100×440×810mm, 2001

우리 미의식에서 태어난 작품세계

“한 번 앉아 보세요.” 바윗돌 틈을 물결이 지나가듯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흘러내리는 나무가 의자가 되었다. 딱딱할 것 같다는 생각은 기우였고, 바람에 따라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몸의 움직임에 따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구조였다. 발치에 놓여있는 큰 돌 한 덩이는 무언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대상이자, 의자의 기능적 구조를 해결하는 또 다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태초의 잔상 07-244」 '가구 디자인의 전당'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Vitra Design Museum)에 소장된 최병훈(55세,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교수 겸 박물관장) 작가의 작품이다. “자연스러운 듯이 흐르는 유기적인 곡선이 던져놓은 듯 한 돌덩이와 함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파리를 비롯한 국내·외 개인전만 11회, 그 중 국제적으로 메이저 갤러리인 파리의 ‘갤러리 다운타운(Galerie Down Town francois laffanour)’에서만 네 번이나 러브콜을 받았다.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초대전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유수의 세계적 탑 디자이너들과는 다른 면이 제 작품에 있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다른 미의식으로 다가온다는 거겠죠.” 그의 작품에 대해 미술평론가 누리자니(Michel Nuridsany)는 ‘물성物性의 대립’ 즉 ‘돌’(무겁고 거침)과 ‘나무’(가볍고 부드러움)의 대립으로 표현되는 정갈함이라 평했고, 미술사학자 안귀숙 박사는 ‘작寂: 고요한 명상冥想’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유기적 모던, 뉴 오리엔탈리즘’이라 칭했다. “서구 사람들은 오리엔탈리즘이나 동양적 선禪, Zen 스타일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일본과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지만, 일본은 ‘인공주의’ 적이예요. 재주가 곧 교양이 되고 다도나 조경에서도 그 룰(rule)을 알아야 인정이 되는 다듬어서 인위적인... 그렇지만 우리의 미 의식은 ‘무심이고 무위자연’ 그 자체예요. 손 대지 않음, 인간미, 자연미가 함께 내재하여있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느낀 문화적 충격

대학 때부터 시작하여 30년 넘게 그만의 세계를 추구하며,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을 그는 ‘좋은 스승’과 ‘좋은 경험’이라 했다. “그때 우리 시절에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같이 공부했어요. 대부분 인테리어 쪽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는데, 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최승천(현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명예교수) 교수님을 만났기 때문일 겁니다. 또 운이 좋아 학교를 졸업하고 KOTRA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일년에 두 차례씩 아프리카 니그로 미술, 마야·잉카 미술 등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내게는 정말 큰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70년대 당시는 우리나라에 이들 문화에 대한 제대로 된 책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문화 다양성’에 눈을 뜨고, 88년 헬싱키 디자인 대학 연구 교수로 가면서 스칸디나비아 가구 디자인에 대해 많이 보고 느끼게 되었다 한다. 그 후 틈나는 대로 구라파 여행, 인도·네팔 배낭여행 등을 통해 지구촌에는 전혀 다른 가치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문화배경을 바탕으로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예겐 마음속으로 각인되었다.



태초의 잔상 afterimage 07-244
walnut, beech tree, melamine resin, black granite
1700×550×900mm, 2007

세계미술 시장에 접근하려면 분명한 자기 색이 있어야

“80년대 초반에는 제 작품에도 데코레이티브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점차 구차스러워졌고, 파리 전시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더 강하게 느끼게 됐죠. 프랑스에서 장식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그 화려한 장식들... 그들에게 장식으로 보여주는건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는 세계적인 미술 시장에 접근하려면, 개인의 ‘오리지널리티’ 즉 독창성이 내면에서 녹아나 ‘분명한 자기 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컬렉터, 큐레이터 등은 다양하고 차원 높은 고도의 문화에 대한 경험이 있으며 예술가들보다 풍부한 재력으로 더 좋은 작품을 볼 기회가 많다는 것. 그만큼 예술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 충격, 미적 경험... 많이 보고 많이 자극을 받고, 내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충격을 받긴 하지만 쫓아가진 않죠. 그들은 어떻게 이루 있는가. 파리에 가면 꼭 아침에 로댕 뮤지엄을 가요. 커피숍에 앉아서 로댕을 호흡하는 거죠. 피카소 뮤지엄에 가면 피카소를 호흡하는 시간... 그들의 세계를 호흡하기 위해 일부러 가요. 하지만 내 세계는 전혀 다르죠. 그들의 작품세계를 추종하진 않아요. 다만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고 또 그 방대한 작업량에 대해서도 새삼 깨닫고, ‘자극’을 받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정신이 죽으니까.” ‘90년대 중반 이후 최병훈의 아트 퍼니처는 국내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주목 받게 되면서 한국 목공예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점차 그의 작품은 실용성을 겸비한 예술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작가로서는 국내 아트 퍼니처의 선구자이면서 새로운 장르 개척자로 인정받고 있다. 라는 미술평론가 누리자니의 평가처럼, 작가 최병훈은 ‘순수 예술’과 ‘공예’라는 한국 특유의 두 가지 장르의 이질



태초의 잔상 afterimage 9637
maple, natural stone
1750×540×430cm, 1470×380×420cm, 900×460×410cm, 1996

미술평론가 누리자니(Michel Nuridsany)는 '물성物性의 대립' 즉 '돌'(무겁고 거침)과 '나무'(가볍고 부드러움)의 대립으로 표현되는 정갈함이라 평했고, 미술사학자 안귀숙 박사는 '적寂: 고요한 명상冥想'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유기적 모던, 뉴 오리엔탈리즘'이라 칭했다.



태초의 잔상 afterimage 05-225
ebony
830×370×800mm, 2005

성을 극복한 작가로 인정 받고 있다. 최병훈 교수는 '전통의 현대화'에 있어 단순한 양식의 차용은 넌센스라고 표현했다. “좋은 예들이 있어요. 일본의 전통을 현대화 해 호평을 받았던 우찌다 시게루의 <tea room>이나, 첨단 테크놀로지로 지어졌지만 이슬람 문화의 모티브를 담은 장 플로베의 건축물 ‘아랍문화센터’ (프랑스 파리 소재) 등을 보면 문양을 차용한다던가 기법을 답습하는 차원을 넘은 무엇이 있습니다. 전통의 미학을 내면에 녹아내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 국제무대에서 공인한 것, 또 다른 시작을 꿈꾼다

그는 이번에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에 컬렉션 된 것도 '또 다른 시작'이라 말한다. 30년 작업한 결과를 국제 무대에서 공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화랑에서 전시 중인 루이스 부르주아라는 96세 된 세계적인 할머니 작가도 60세까지는 무명 작가였어요. 자기 작업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예요. 뼈를 깎는 인내의 세월과 우수한 작품세계를 창조한다면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는 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작업실로 내려오자, 그의 조교가 작업 상황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할 수 없는 듯, 나무로 된 작품 위에 다시 새로운 스케치 선들이 그어진다. “인간의 정취, 작가의 감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진정한 자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정신과 정체성이 녹아 들어야 진정한 휴머니티가 작품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늦은 토요일 오후에도 그는 혼자 작업실에 남았다. 지금까지의 작업이 '완성'이 아닌 늘 새로운 도전이듯이, 이제 그가 만들어낼 그만의 새로운 세계가 더욱 궁금해진다. 글 신나영 사진협조 배병우, 임연균



작업실을 찾은 프랑스 galerie DOWNTOWN의
Francois Laffanour사장 2005



최병훈 작가는 직접
나무를 깎고 돌을 가는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다